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0월 30일 (제87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몰락한 지도자 상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말이 있다. 본시 당나귀 귀는 크기는 한데 막혀서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귀가 막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임금을 비아냥대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한다.

한 때 카리스마가 넘치고 뛰어난 영도력을 보인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 몰락하여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으뜸은 귀가 막혀서다. 아랫사람이나 주위의 충언, 충고에 귀를 닫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은 사울로, 사무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는 아말렉에서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등,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사무엘이 오지 않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월권을 자행하다 결국 버림받았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동일하다. 선정을 베푸라는 노정객의 말을 무시하고 철권통치를 강행하다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말았다. 귀가 막히면 이렇다.

망하는 자들은 ‘고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집은 불통’이라 했는데 왜 불통이겠는가. 안 들으니까, 듣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통할 리 없다. 지도자는 원칙은 있어야 하나 고집은 버려야 한다. 귀를 열어 통해야 한다. 연로가 막히면 망하는 법.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통치권자가 살고,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기업이 살고, 가족의 소리를 들어야 가정이 살고, 성도의 소리를 들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나는 귀를 열어놓고 산다. 장로들의 충언이나 성도들의 이메 일이나 문자에도 신경을 쓴다. 내가 몰락하지 않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12:1),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12:15).

자고로 큰 자란 귀는 크고, 입은 작아야 하는 법이다.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시대의 개막

소비자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나아가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한 공영방송에 소개된 세계 금융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이제 화폐 및 금융의 큰 축을 담당하던 은행권들이 IT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 빠르고, 더 자유롭고 투명한 금융 흐름을 지향하는 금융기업들이 IT기술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실현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의 CEO가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IT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

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소외계층이 있는데 현금 이외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실제 구매행위에 아예 현금사용을 배제시키려는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노점상이나 자활잡지를 파는 노숙자들조차 카드결제를 비롯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다. 이런 실정인지라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이 없어질 나라로 스웨덴을 꼽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 중 프랑스, 벨기에 등은 아예 현금거래의 상한선을 정해놓음으

졌기 때문이다.

페이팔, 알리페이, 비트코인, 애플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전자결제를 통한 디지털화폐시장을 석권하려 또 다른 화폐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지난해 한국을 찾아 알리페이의 한국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금융전쟁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수십 년 전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며 그렸던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화되어가는 오늘날이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메시지를 통해 정보



세계 금융거래 환경이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다

거다.

IT금융의 기초는 결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다. 수많은 정보들을 서로 빠르게 연결해줌으로써 더 간편하고 편리하며 빠르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로 1661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했던 스웨덴은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거의 다 서고 있다. 빠른 속도로 현금거래가 줄어들고, 핀테크(Fintech)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교회에서조차 현금합이 사라져 성도들이 전자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상점들조차도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카드결제나 디지털화폐사용을 선호한다. 여기

로써 화폐의 음성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집행 중에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제 결국 ‘현금 없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다고 하겠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현금거래가 가장 많은 일본조차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며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문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도 1979년 처음 도입되어 많은 은행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었던 현금지급단말기가 중고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굳이 현금을 찾을 이유가 많이 없어

의 공유에 대해 강조하셨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 성장, 발전해가는 과학과 문명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정확한 현실인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도 강조하셨다.

디지털화폐와 현금 없는 사회의 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천기를 분별하듯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만(마16:2~3),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땅을 떠나서 살지 않을 바에야 현실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적응력 또한 필요하다(고전5:10). 미처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변모해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 ~ 12월 1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21)

재앙을 막으려면 정보를 공유하라

인터넷의 모든 주소 앞에 있는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버너스 리 박사는 유럽 소립자 물리학연구소(CERN)의 연구원입니다. 1989년 3월,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 정보체계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버너스 리 박사는 이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www'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획기적 발명에 주위 사람들은 특허를 출원하라고 했습니

다만 그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1991년 이것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머느리도 몰라' 하는 카피가 TV광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추장 담그는 그 비법을 머느리도 모르고 다만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하지 않고 죽으면 그 비법은 거기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 고추장 맛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 맛이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상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도 나누어야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공유(共有), 이것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기업 간에도, 가족 간에도 공유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야 단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외 집회 팀들은 외국에 나가면 돈도 다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회의 중요한 업무나 사안들은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공유할 건 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모든 주소 앞에 있는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버너스 리 박사는 유럽 소립자 물리학연구소(CERN)의 연구원입니다. 1989년 3월,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 정보체계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버너스 리 박사는 이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www'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획기적 발명에 주위 사람들은 특허를 출원하라고 했습니

다만 그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1991년 이것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머느리도 몰라' 하는 카피가 TV광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추장 담그는 그 비법을 머느리도 모르고 다만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하지 않고 죽으면 그 비법은 거기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 고추장 맛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 맛이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상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도 나누어야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력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 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누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혼자 귀신을 쫓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자들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뿐 아니라 집사와 평신도까지 능력을 행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온다는 정보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저 혼자 어떻게 귀신을 다 쫓

습니까? 총을 나눠주면 누구나 방아쇠를 당겨 산돼지나 이리를 잡을 수 있듯,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각양 은사, 곧 무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흑암 중에 살고 있음은 웬 일입니까. 이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호4:6). 무슨 말이나?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지식이나 나열하

고, 교양이나 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 혼자 귀신을 쫓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기도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나간 가지는 곧 말라버리듯,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용지물이듯, 기도하지 않아 성령을 소멸한 자는 권능은 고사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 떠난 고기가 벌레 밥이 되듯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고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더욱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마귀의 방해공작을 받지 않게 됩니다(고전14:2).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6:18).

전쟁은 무기의 성능과 정보수집능력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 바울이 받아 능력을 행했던 그 성령, 제가 오늘날 세계를 다니며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정보를 공유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므로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며, 천군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

‘맨날 성령이냐’, ‘때번 귀신이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전해도 듣지 않고, 아니 듣기 싫어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병들고 망해서야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s)

죄인을 포용하시는 예수님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 ‘경제적 해자’는 마치 성의 해자(壕子, 성 주위에 둘러 판 도랑)처럼 한 기업을 경쟁사들로부터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강점을 말합니다. 중세시대 성 주위에 만들어져 있는 해자가 적들의 공격을 막은 것처럼, 경제적 해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자본수익률(ROI)을 보호해줍니다. 기업의 목적은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투자한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자본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매우 경이적인 속도로 투자자의 부를 늘려줄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가장 높은 예상수익을 낼만한 곳을 찾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문 앞에는 빠른 속도로 경쟁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우수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구성이 뛰어난 물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는 기업, 즉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은 가치가 높은 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가치는 한 순간에 0(zero)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경제적 해자가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해자가 없는 기업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이유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해자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경쟁사들로부터 보호될 현금흐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수익률은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빠른 성장률에 매혹되기는 쉽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자는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원천은 가격결정능력을 보유한 브랜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고객전환비용, 원가경쟁력 등입니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기업 중 이와 같은 특징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은 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쟁우위를 갖게 하는 ‘영적 해자(Spiritual Moats)’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구제나 표적이 따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할 것이나 언제나 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고전 13:13). 바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영적 해자의 으뜸이 아닐까요? 이미경 lmkwdf@hotmail.com

태백산에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는 곳이 있다. 발원지라는 말 그대로 검룡소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무려 514km를 흘러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로 합류하게 된다. 둘레 약 20m의 연못에서 지하수가 하루에 2,000톤~3,000톤씩 나오며 사계절 9°C의 물이 뿜어져 나와 한강으로 흘러내려간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 두 줄기이며, 남한강이 본류이고 북한강이 거기에 합쳐지는 줄기이다. 때문에 보통 한강의 발원지를 남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고 한다. 검룡소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3개의 도와 12개의 시군을 거쳐 32개의 지류와 합하여 한강으로 이어진다. 큰 강은 이처럼 하나의 물줄기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류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한강의 본류는 이 물이나 저 물 구별 없이 받아들여 한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 이러한 포용력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

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닌 소경, 창녀, 거지, 문둥병자 가릴 것 없이 병들고 아픈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셨다. 정죄 받는 죄인의 편에서 서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눅5:32).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홀로였으면 그저 작은 실개천에 불과했을 죄인들이 예수라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만나 성령의 역사라는 강이 되어 바다 같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구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3).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너 지금 짝하고 있어!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파일의 공개되어 이번 대선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출연을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는데, 동승한 사람과 함께 사적으로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나온 음담패설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미국 내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물론 그와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뜰이나 다른 인종이나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고, 평소에도 여성비하와 차별성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였기에, 이번 사건은 그의 이미지와 대선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말조심, 행동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여 년 전에 버스 안에서 나눴던 음담패설 몇 마디가 자신의 일생일대의 목표와 쌓아온 명예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요. 옛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고 했는데, 이는 그 반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을 명하여 다 짚고 녹음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날마다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도 ‘너 지금 짝하고 있으니 까 말이란 행동 조심하라’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눅12:2~3).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있음을 알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내 발걸음이 악한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깁시다. “너 지금 짝하고 있어!”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할로윈(Halloween) 데이

‘할로윈 데이’라고 들어보았는가? 매년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좀비, 마녀, 해골 분장을 한 사람이 모여 파티를 하고, TV광고, 백화점, 놀이동산 등에서는 이날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날을 그냥 단순한 축제일로 여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B·C) 500년쯤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삼하인(Samhain-죽음의 신을 섬김) 축제에서 유래되었는데,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이었다. 그날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1년간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다. 이들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죽은 자들이 앞으로 1년간 자신들이 머물 상대를 선택하는 날로 여겨진다. 일반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면서 시작된 풍습인데, 지금처럼 미국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미도 모른 채 귀신이나 마귀 분장과 함께 피를 먹지먹지 바르고 파티

장이나 놀이동산으로 향한다. 이들이 가장 많이 분장하는 좀비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망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피로 심판 날 죽지 아니한 성스러운 존재로 다시 사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철저히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좀비나 뱀파이어, 귀신 등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분별할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교회라는 점이다. 예수님도, 총회장 목사님도 귀신과 친구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오로지 귀신은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20). 이제부터라도 10월 31일을 귀신을 섬기는 ‘할로윈 데이’로 즐기는 대신 마르틴 루터를 기억하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구습과 전통에 대항하여 삶의 정점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나방 or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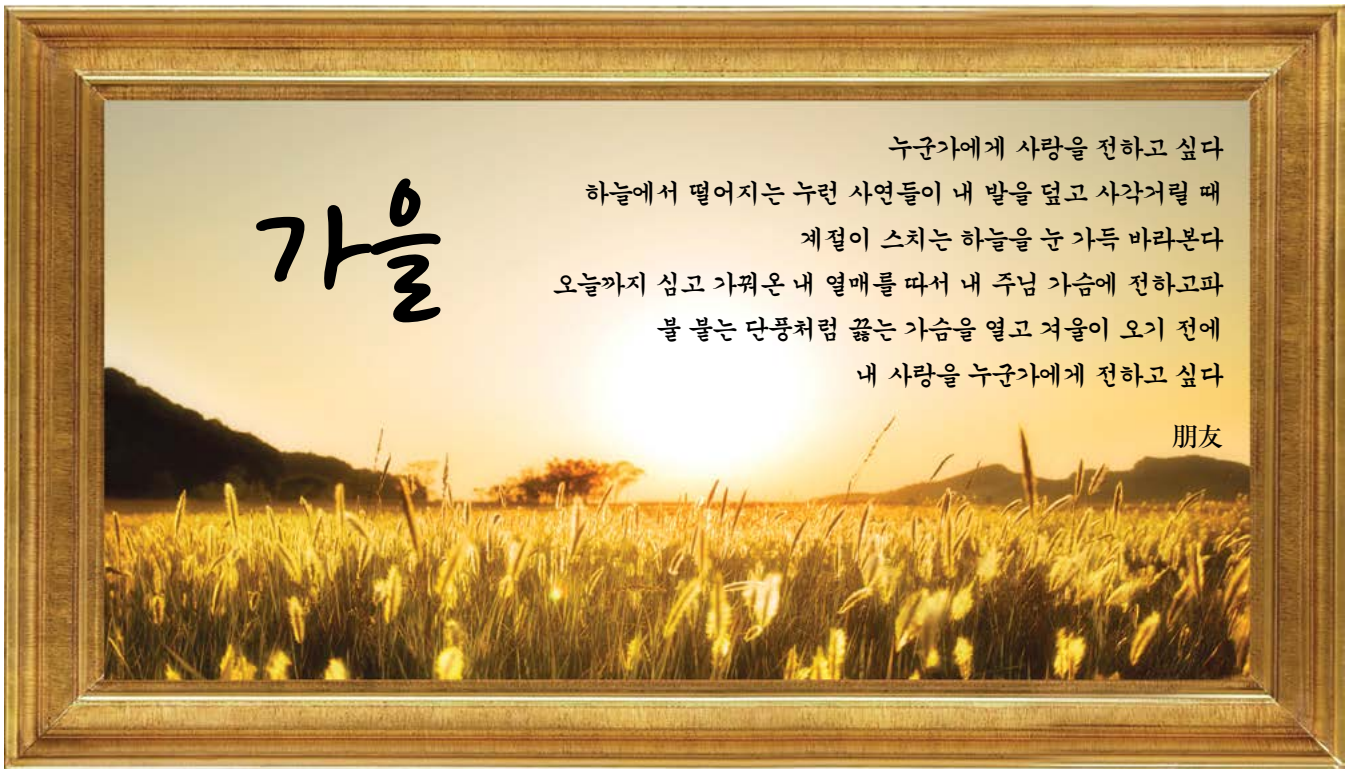
나방과 나비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다. 나방은 천적인 새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주변사물과 비슷한 어둡고 칙칙한 색으로 자신을 바꾸었다. 하지만 워낙 눈이 좋은 새들에게 곧잘 눈에 띄이고 빈번히 잡아먹히기에 개체 수를 열심히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반면 나비는 오히려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드러내 새들이 자신을 잘 찾아내도록 하되 독을 품고 있어 심한 배탈이 나게 한다. 그래서 첫 나비 한 마리가 희생하여 새들에게 잡아먹히면, 그 고통을 기억한 새들이 다시는 다른 나비들을 잡아먹는 일이 없기에 새들 앞에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나방 혹은 나비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혹여 손가락질 받거나 사탄의 먹이가 될까 두려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숨고 몸을 사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

을 믿어 나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잡아먹을 테면 먹어보라!’고 화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방과 나비가 그러했듯이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나방 그리스도인은 새, 즉 사탄에게 늘 잡아먹힐까 두려움에 떨지만 나비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사탄 앞에서도 당당하고 되레 겁을 주는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한 책망이 담겨있다. 차든지 덥든지 확실치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신다고 경고하신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 몸을 숨기며 지탄받을 만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싶은 그들에게 사실은 무지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신다. 모두들 무섭다고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다윗, 노예로 끌려간 곳에

서 기도를 금지해도 하루 세 번 보란 듯이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1대 450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맞장도 불사한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앞에서도 해같이 빛난 얼굴로 복음을 전한 스테반, 사형선고를 받을 법정에서 순간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설레었을 사도 바울,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결국 사탄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생각에 벅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세상 속에 숨을 줄 모르고 화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하나님의 나비들이었다. 우리는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나방인가, 나비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비 같은 성도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날아오르고, 사탄이 무서워 피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말수는 적게!

‘세치 혀가 육체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입을 지키는 자가 그 생명을 보전한다”(잠13:3)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매를 버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 사람을 벌떡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분의 지혜로운 한마디 말 덕분에 슬픔과 좌절 속에서 치유되어 벌떡 일어나본 경험이 제게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격을 높이고 낮추기도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노아의 후손들을 다루실 때에 그들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그들의 말을 흠어 버리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쓸데없이 이말 저말 하지 말고 자기 일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말로써 오해를 사고, 말로써 시비가 일고, 말로써 다툼이 잦습니다. 말이 과한 사람은 말은 거창하되 실속이 없고 매사 신뢰를 잃게 되며, 말이 앞서서 사람은 계획은 있어도 실천이 없으니 그 결과가 실통치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약3:8)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씨는 곱게, 말수는 적게 합시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시험불안 극복하기

이제 수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수험생 부모로서 역시 마음의 긴장과 불안감을 내색할 수도 없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시기이다. 큰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시험불안증을 느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안다면 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시험불안증의 증세로는 두통, 구역질, 복통, 설사, 불면, 안절부절,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몸이 덥거나 추운 등의 증상들이 있다. 정서적으로는 자주 눈물이 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무력감, 혹은 예민하고 화를 자주 내기도 한다. 시험불안증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은 규칙적인 수면, 식단, 운동, 휴식,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끝까지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학습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

도착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과의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시험 도중 불안감이 생기면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하여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어려운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으며, 전날 가볍고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시험 당일에는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달걀, 시리얼, 신선한 과일, 통밀빵 등을 주고, 평소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격려를 해준다. 자녀가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비교를 통해서 불안해한다면 ‘생각 멈추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시험불안으로 불면증이 심하다면,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한방차로는 산조인차(회당 산조인 10g)를 마시고, 긴장하고 배가 아플 때는 작약차(회당 작약 6g)를 마

시고, 불안감이 심하여 미리 걱정하고 산다면 용안육차(회당 용안육 4g)를 마시고, 속으로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응어리가 많다면 향부자차(회당 향부자 4g)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과도한 학습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에 피로가 많을 때에는 대추차(회당 대추 6g)를 마시는 것에 뇌에 영양을 보충하여 피로감을 가시도록 도움을 준다. 공진단이나 경옥고와 같은 보약들도 체력이 다소 부족하고 시험불안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시험불안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누구나 겪을 정도의 시험불안증이라면 건강한 방법으로 극복할 때 도리어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경험이 될 수 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 Global Study ::

☞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꿈 있는 자 새벽을 깨워 잠을 이긴 자다
What are you dreaming about?
Those who have dreams wake at dawn
and have victory over sleep.
你在做什么样的梦呢?
有梦想的人是唤醒黎明
而胜过睡眠的人
☞ 꿈은 누구나 꾀다
꿈을 이룬 자는
새우잠 속에 새벽을 깨운 자다
Anyone can dream a dream, but the one
who achieves the dream wakes at dawn
even at an uncomfortable time.
梦想谁都有,
实现梦想的人是蜷睡中唤醒黎明的人